



*사진 출처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numbers

vol. 343 | 2026.7.21.

미국 한인교회(PCA교단) 목회 실태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 41%,
현재 '영적 번아웃' 상태!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국내 체류·입국 외국인 현황
2. 2025 언론·미디어 이용 및 신뢰도

넘버즈 칼럼

여름휴가와 안식의 재발견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한인교회 목회자 41%, 현재 ‘영적 번아웃’ 상태!

이민 목회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미국 한인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들의 영적·정서적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미국 PCA교단의 의뢰를 받아 미국 PCA(미국 장로교)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들의 목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목회자 10명 중 4명(41%)이 현재 ‘영적 번아웃’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양의 최전선에 선 목회자들이 상당한 고립감과 소진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러한 위기감은 한인교회의 미래 전망에서도 드러난다. 10년 뒤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해 목회자의 69%가 ‘쇠퇴할 것’이라고 응답해 비관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번 <넘버즈 343호>에서는 미국 한인교회의 목회 현실과 미래 전망을 살펴본다. 중소형교회 중심의 교회 구조와 전도·다음세대 사역의 어려움, 목회자의 영적 소진과 은퇴 준비 문제까지 짚어보았다. 이번 호가 미국 한인교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목회자를 어떻게 돌보고 지원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한인교회(PCA교단) 목회자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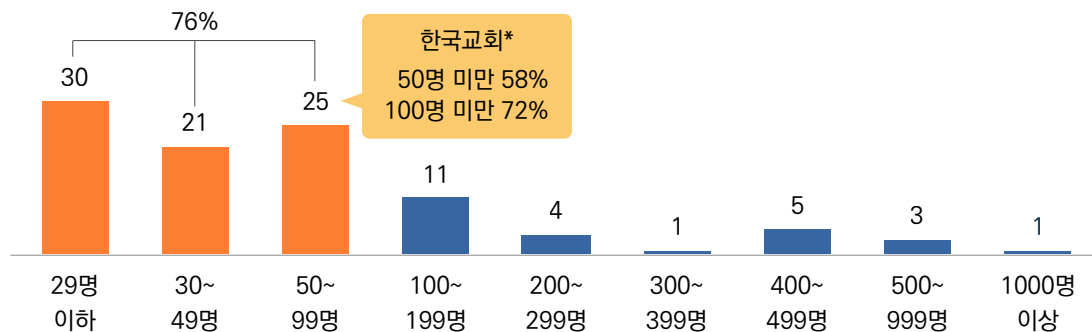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표본 규모	총 115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모바일 조사
표본 추출	전수조사 (총 213명 담임목사 중 115명 응답 - 응답률 54.0%)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6년 4월 1일 ~ 2026년 4월 19일(총 19일간)
조사 주체	미국 PCA교단 내 한인교회 목회자 노회
조사 기관	연구분석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사 : (주)지앤컴리서치

미국 한인교회, '100명 미만' 중소형교회가 76%에 달해!

-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의 성인 기준 출석 교인 수 비중을 살펴본 결과, '29명 이하'가 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99명' 25%, '30~49명' 21% 순이었다. '50명 미만' 소형교회가 전체의 절반(51%)을 차지했으며, 이를 '100명 미만'으로 확대하면 교회 4곳 중 3곳(76%)에 달해 중소형교회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 한국교회(예장통합교단)와 비교해 보면, '50명 미만' 소형교회 비중은 한인교회(51%)가 한국교회(58%)보다 약간 낮았다. 하지만 '100명 미만' 중소형 교회 비중은 한인교회(76%)가 한국교회(72%)를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출석 교인 수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N=1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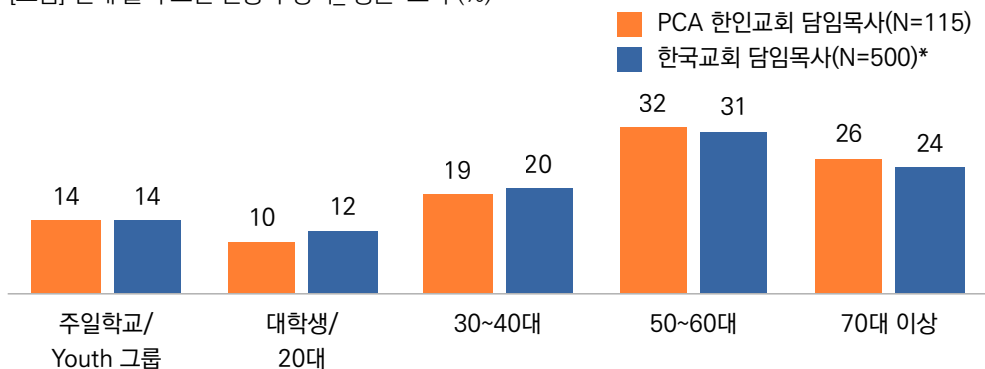


*한국 출처 : 예장통합 교세 통계, 2024.

교인 연령, 한국교회 대비 '고령층' 비중 다소 높아!

- 현재 출석 교인 연령 구성을 한국교회와 비교한 결과, 미국 한인교회는 전반적으로 한국교회와 유사한 연령 분포를 보였다. 다만 '50대 이상' 비중은 58%로 한국교회(55%)보다 3%p 높아, 고령층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현재 출석 교인 연령 구성비_ '평균'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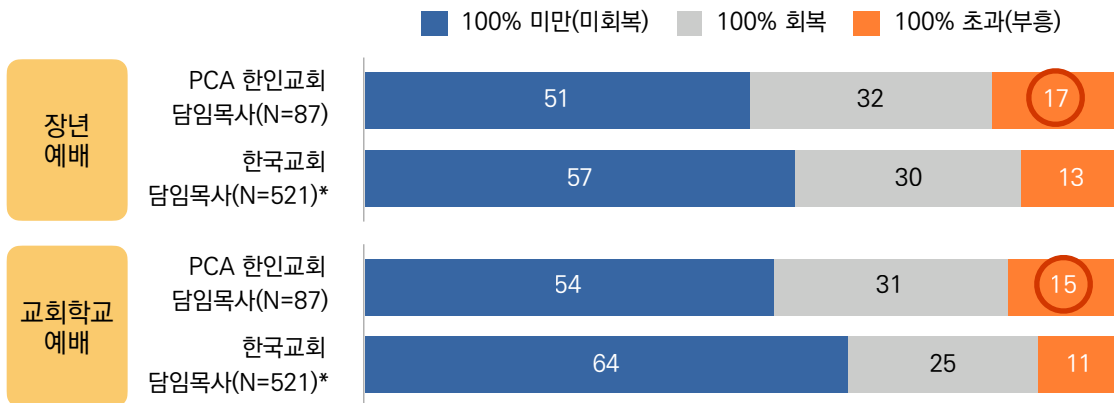


*한국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조사', 전국 교회 담임목사 500명, 모바일조사, 2025.05.

미국 PCA 한인교회, 한국교회 대비 부흥하는 교회 비율 더 높다!

- 코로나 이전의 주일 예배 참석자를 100으로 본다면 현재 PCA교단 한인교회의 '장년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 참석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한국교회와 비교해 본 결과, 장년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 모두 미국 한인교회가 한국교회보다 100% 초과 비율, 즉 부흥하는 교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예배 참석자가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난 부흥하는 교회 비중을 살펴보면, 장년 예배의 경우 PCA 한인교회가 17%로 한국교회(13%)보다 4%p 높았다. 교회 학교 예배 역시 PCA 한인교회가 15%를 기록해 한국교회(11%)를 4%p 앞섰다.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주일 현장예배 회복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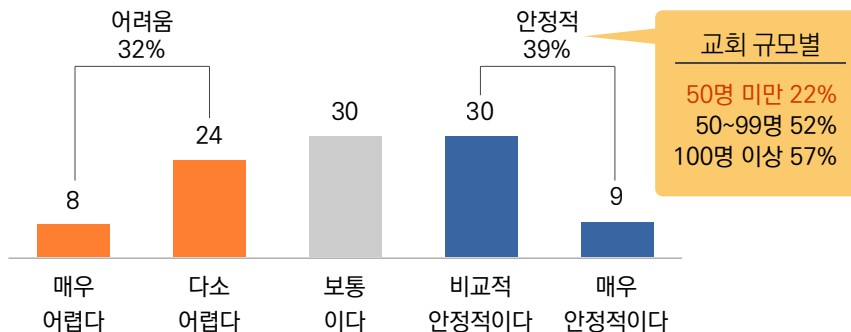


*한국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목회 실태 추적조사', 2026.02.(전국 교회 담임목사, 521명, 모바일 조사)

시무교회 재정 상태, 미국 한인교회 10곳 중 4곳은 '안정적'!

- 시무교회의 재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안정적'(매우+비교적)이라는 응답은 39%로 교회 10곳 중 4곳꼴이었다. 이외 '보통'은 30%, '어려움'(매우+다소)은 32%였다.
- 특히 교회 규모에 따른 재정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관측되었다. 재정이 '안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을 규모별로 보면, '100명 이상' 중대형 교회는 57%, '50~99명' 교회는 52%에 달해 과반을 기록했다. 반면, '50명 미만' 소형교회의 경우 재정이 안정적이라는 응답이 22%에 불과해,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재정적 안정성이 크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시무교회 재정 현황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N=1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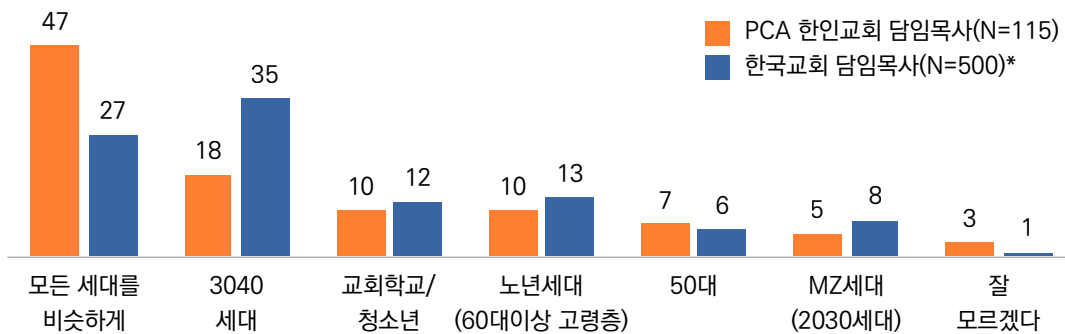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향후 목회 중점 세대, 미국은 ‘모든 세대’ vs 한국은 ‘3040세대’!

- 향후 목회에 중점을 두고 싶은 세대를 묻은 결과, 미국 한인교회는 ‘모든 세대를 비슷하게’ 중점을 두겠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한국교회(27%) 대비 20%p나 높은 수치다. 특정 타깃 세대를 집중 공략하기보다 전 세대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이민 교회의 목회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반면, 한국교회는 ‘3040세대’를 꼽은 비율이 35%로 가장 높아, 교회 허리 세대의 이탈을 막고 정착시키려는 흐름이 뚜렷했다. 반면 미국 한인교회에서 ‘3040세대’를 중점 세대로 지목한 비율은 18%로 한국교회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림] 향후 목회 중점을 두고 싶은 세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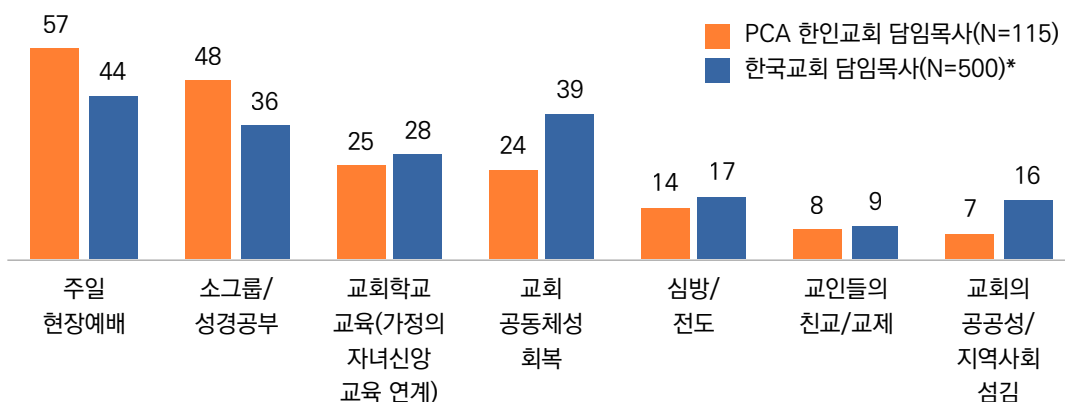


*한국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조사’, 전국 교회 담임목사 500명, 모바일조사, 2025.05.

향후 목회 중점 사역, 미국은 ‘예배+소그룹’ vs 한국은 ‘예배+공동체성’!

- 향후 목회 중점을 어느 사역에 둘 것인지를 묻은 결과(1+2순위), 미국 한인교회(57%)와 한국교회(44%) 모두 ‘주일 현장 예배’를 1위로 꼽아 예배 본질 회복에 대한 공통된 열망을 드러냈다. 하지만 2순위에서는 미국 한인교회가 ‘소그룹’(48%)을, 한국교회는 ‘교회 공동체성 회복’(39%)을 꼽아 목회적 초점에 차이를 보였다.
- 이는 미국 한인교회가 이민 사회 특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소그룹을 통한 깊은 관계성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후 느슨해진 공동체의 결속을 더 시급한 해결 과제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향후 목회 중점 사역 (1+2순위,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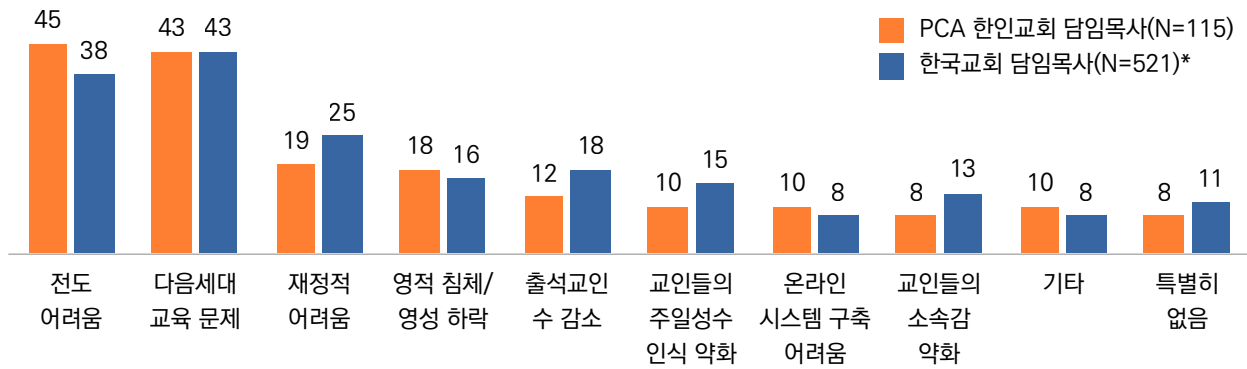


*한국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조사’, 전국 교회 담임목사 500명, 모바일조사, 2025.05.

목회 사역 과제, 미국/한국 모두 '전도와 다음세대'!

- 현재 목회 사역에서 어려운 점(1+2순위)을 물은 결과, 미국 한인교회는 '전도 어려움'(45%)과 '다음세대 교육 문제'(43%)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한국교회 역시 다음세대와 전도를 1,2위로 꼽아 사역지의 물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영혼 구원'과 '미래 세대 양육'이라는 동일한 고민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목회 사역 중 어려운 점 (1+2순위, %)



*한국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목회 실태 추적조사', 2026.02.(전국 교회 담임목사, 521명, 모바일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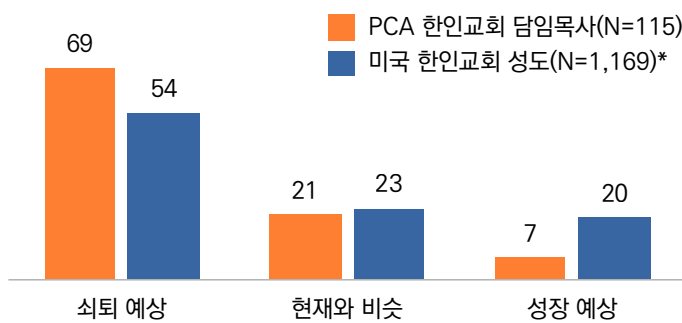
03

[미국 한인교회의 미래 전망]

미국 한인교회 미래 전망, 목회자가 성도보다 더 비관적!

- 10년 뒤 한인교회 미래에 대해 물은 결과,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와 성도 둘 다 '쇠퇴 예상' 응답이 절반 이상(목회자 69%, 성도 54%)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장 예상' 비율은 성도가 20%인 데 반해, 목회자는 7%에 불과했다.
- 이는 한인교회 미래에 대해 성도보다 목회자가 전반적으로 훨씬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그만큼 목양 최전선에서 느끼는 현실적 위기감이 더 깊음을 보여준다.

[그림] 10년 뒤 한인교회 미래 예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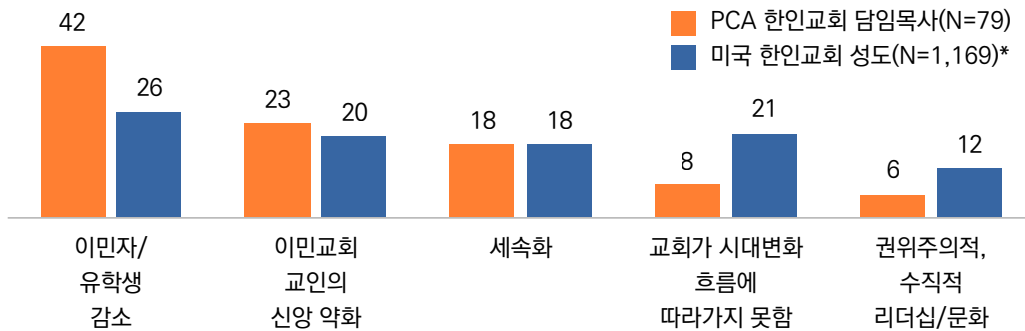


*성도 출처 : CTS America/MICA/AEU마성대, '미국한인교회 실태조사', 2024.04. (미국 한인교회 만19세 이상 성도1169명, 2024.02-03. 모바일조사, 목회데이터연구소)

미국 한인교회 쇠퇴 이유, 목회자보다 성도가 ‘내부 요인’을 더 문제로 인식

- 한인교회의 쇠퇴를 예측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목회자는 ‘이민자/유학생 감소’(42%)라는 외부 환경적 요인을 쇠퇴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반면 성도는 외부 환경적 요인에 대해 26%만 응답해 상대적으로 낮게 체감하고 있었다.
- 반대로 교회의 내부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성도 쪽에서 훨씬 강했다. ‘교회가 시대변화 흐름에 따라가지 못함’ 응답은 성도(21%)가 목회자(8%)보다 13%p나 높았고,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리더십/문화’ 역시 성도(12%)가 목회자(6%)보다 6%p 높게 나타났다.

[그림] 한인교회 쇠퇴 예측 이유 (상위 5개, %)



*성도 출처 : CTS America/MICA/AEU미성대, '미국한인교회 실태조사', 2024.04. (미국 한인교회 만19세 이상 성도1169명, 2024.02-03. 모바일조사, 목회데이터연구소)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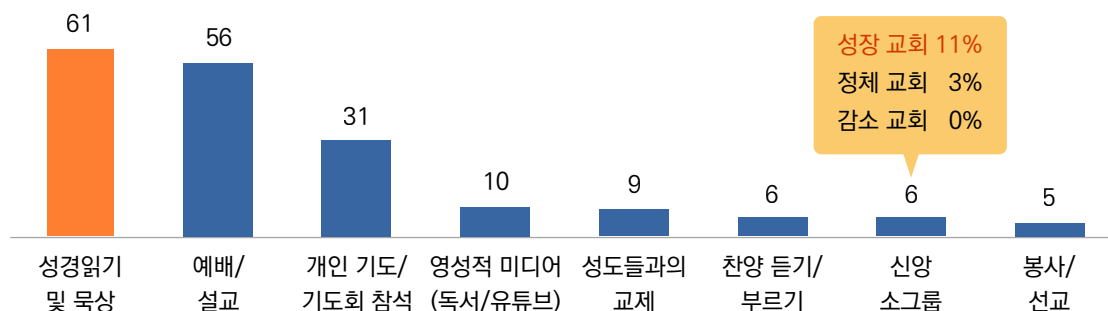
04

[목회자의 영적 · 정서적 건강]

평소 목회자의 개인 영적 활동, ‘공동체 영성(소그룹 등)’은 부족!

- 평소 중점적으로 하는 영적 활동(1+2순위)을 묻은 결과, ‘성경읽기 및 묵상’(61%)과 ‘예배/설교’(56%)가 월등히 높게 응답된 반면 ‘성도들과의 교제’(9%), ‘신앙 소그룹’(6%) 등 관계 지향적 공동체 영성 활동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 개인 영성이 ‘성경·예배’ 중심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준다.
- 한편 출석 교인이 증가하는 ‘성장하는 교회’(11%)에서는 ‘감소’(0%)나 ‘정체’(3%) 교회 대비 목회자가 ‘신앙 소그룹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주목된다. 목회자가 소그룹에 참여하며 성도들과 밀착 소통하는 적극적 영성 활동이 교회 성장의 보이지 않는 핵심 동력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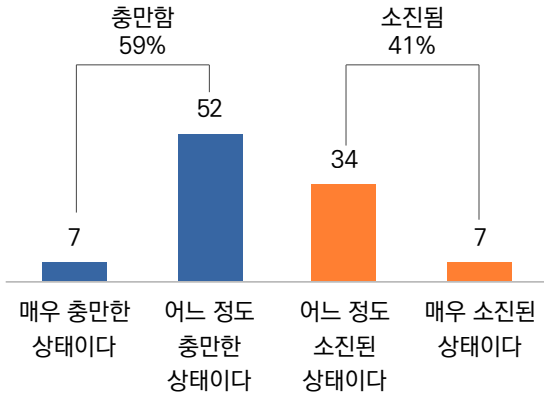
[그림] 평소 중점적으로 하는 영적 활동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1+2순위, 상위 8개, N=115, %)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 41%, 현재 ‘영적 번아웃’ 상태!

- 현재 목회자의 영적 상태를 묻은 결과,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의 41%는 ‘소진된 상태’(매우+약간)라고 응답했다. 특히 이러한 영적 소진은 쉼의 부재와 경제적 고충과 맞물려 있었다. 영적 번아웃 비율은 ‘정기적으로 안식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45%), ‘가정(50%)/교회(49%) 재정이 어려울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현재 영적인 상태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N=1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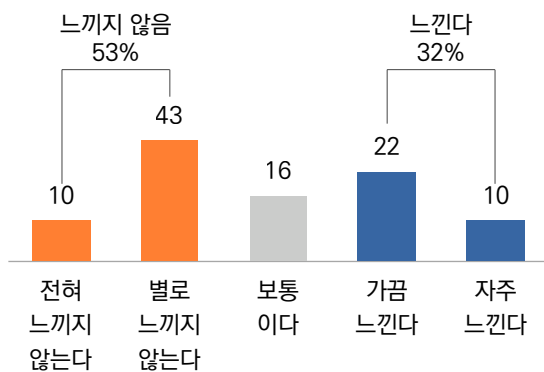
[표] 응답자 특성별 현재 영적인 상태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N=115)

		충만	소진
안식 시간 보유 여부	안식 시간 갖음	70%	30%
	안식 시간 못 갖음	55%	45%
가정 재정 현황	안정적	69%	31%
	어려움	50%	50%
시무교회 재정 현황	안정적	68%	32%
	어려움	51%	49%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 3명 중 1명, ‘외롭다’!

- 목회하면서 느끼는 외로움 수준을 묻은 결과,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의 32%가 ‘외로움을 느낀다’(자주+가끔)고 답해 3명 중 1명꼴이었다. 반면 ‘느끼지 않는다’(전혀+별로)는 53%, ‘보통’은 16%였다.
-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을 그룹별로 살펴보면, ‘49세 이하’ 비교적 젊은 목회자층(41%), 현재 ‘영적 소진 상태’인 목회자(47%)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젊은 목회자 그룹은 고민을 나눌 또래 네트워크나 멘토 부족 요인, 즉 정서적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더 외로움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목회하면서 외로움 수준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N=115, %)



[표] 응답자 특성별 목회자의 외로움 수준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N=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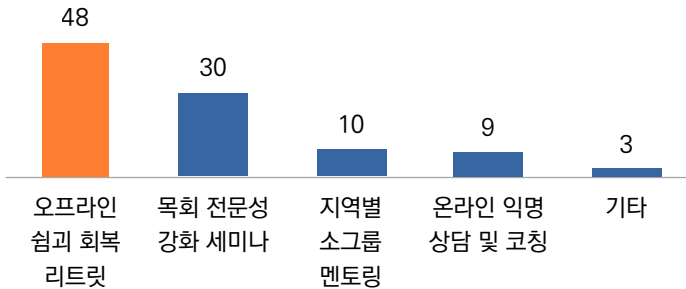
		느끼지 않음	느낌
연령별	49세 이하	41%	41%
	50대	51%	36%
	60세 이상	58%	24%
현재 영적 상태	충만함	65%	22%
	소진됨	34%	47%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노회/총회 차원 목회자 돌봄 제공 시, ‘오프라인 심과 회복’ 원해!

-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제공되길 원하는 목회자 돌봄 프로그램을 묻은 결과, ‘오프라인 심과 회복 리트릿’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목회 전문성 강화 세미나’(30%), ‘지역별 소그룹 멘토링’(10%) 등의 순이었다.
- ‘심과 회복’을 원하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은 현재 한인교회 목회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사역 현장을 잠시 떠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임을 보여준다.

[그림] 노회/총회 차원에서 제공되길 원하는 목사 돌봄 프로그램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N=1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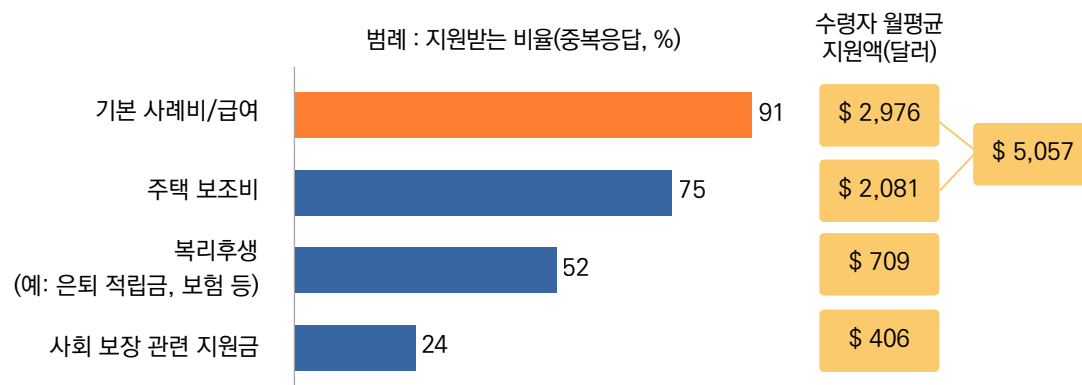
05

[목회자 처우와 은퇴 준비]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 월 급여+주택 보조 5,057달러!

- 교회가 목회자에게 제공하는 처우와 복지를 살펴본 결과, ‘기본 사례비/급여’를 지급한다는 응답이 91%로 가장 높았다. 기본 사례비/급여는 월평균 2,976달러였다.
- ‘주택 보조비’를 지원하는 교회도 75%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월평균 지원액은 2,081달러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에서는 기본 사례비와 함께 주거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식이 담임목사 처우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반면, 은퇴 적립금과 보험 등을 포함한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교회는 52%, 수령자의 월평균 지원액은 709달러였다. ‘사회보장 관련 지원금’을 제공하는 교회는 24%에 그쳤고, 월평균 지원액도 406달러로 나타났다.
- 즉, 기본 사례비와 주택 보조비는 상당수 담임목사에게 제공되고 있지만, 은퇴 준비와 보험, 사회보장 등 장기적인 생활 안정과 관련된 복지 지원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목사 처우와 복지 지원 실태 및 항목별 월평균 지원액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상위 4개)



Note) 지원 비율은 전체 응답자 기준(N=115)이며, 월평균 금액은 각 항목의 지원을 받고 있는 목회자 기준임. 기본 사례비/급여 N=105, 주택 보조비 N=86, 복리후생(예: 은퇴 적립금, 보험 등) N=60, 사회보장 관련 지원금 N=28.

미국 한인교회 ‘월 급여+주택 보조’, 교회 규모별 월 2,000달러 가까이 차이

- 교회 규모별로 목회자 처우와 복지 지원을 살펴본 결과, ‘월 급여’와 ‘주택 보조’ 수령 기준으로 ‘50명 미만’ 교회는 월평균 4,328달러, ‘50~99명’ 교회는 5,091달러, ‘100명 이상’ 교회는 6,292달러로 조사됐다. 교회 규모에 따라 월 2,000달러 가까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교회 규모별 복지 지원 세부 현황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중 각 복지 항목별 수령자,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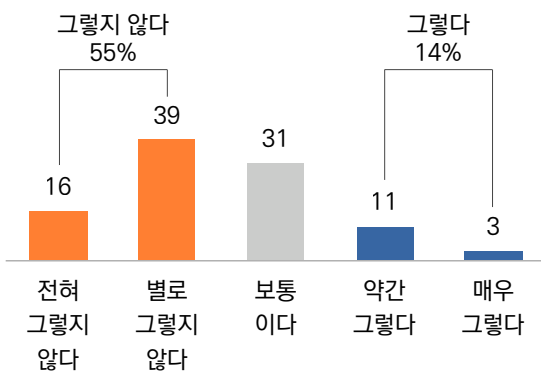
		기본 사례비 /급여	주택 보조비	복리후생 (은퇴 적립금, 보험 등)	사회보장 관련 지원금
전체		\$ 2,976	\$ 2,081	\$ 709	\$ 406
교회 규모별	50명 미만	\$ 2,510	\$ 1,818	\$ 588	\$ 162
	50~99명	\$ 3,008	\$ 2,083	\$ 779	\$ 448
	100명 이상	\$ 3,814	\$ 2,478	\$ 726	\$ 520

Note) 월평균 금액은 각 항목의 지원을 받고 있는 목회자 기준임. 기본 사례비/급여 N=105, 주택 보조비 N=86, 복리후생(예: 은퇴 적립금, 보험 등) N=60, 사회보장 관련 지원금 N=28.

은퇴 시 편안한 생활 예상, 14%에 불과!

- 은퇴 시 충분한 저축을 통해 편안한 생활을 예상하는 목회자 비율은 14%에 그쳤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5%)으로 나타나 목회 은퇴 이후 삶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엿볼 수 있었다.
- ‘은퇴 시 생활이 편안할 것이라는 전망’은 60대 이상 목회자(24%), 시무교회 재정지위가 안정적이라고 응답한 목회자(25%)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은퇴 시 충분한 저축을 통해 편안한 생활 예상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N=1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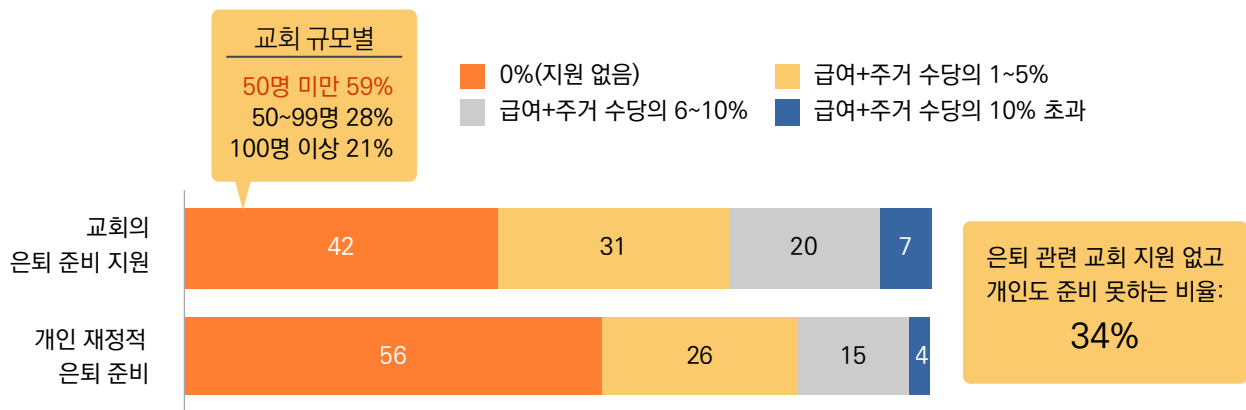
[표] 응답자 특성별 은퇴 시 편안한 생활 예상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N=115)

		그렇지 않다	그렇다
연령	40대 이하	53%	12%
	50대	68%	6%
	60대 이상	40%	24%
시무교회 재정현황	안정적	41%	25%
	어려움	65%	8%

한인교회 목회자 34%, 은퇴 관련 교회 지원도 없고, 개인도 준비 못한다!

- 은퇴 준비 현황을 교회와 개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교회의 은퇴 지원이 전혀 없다'(0%)는 응답은 42%, '개인적으로 은퇴 준비(저축)를 하지 못하고 있다'(0%)는 응답은 56%였다. 교회 규모별로는 출석 교인 50명 미만 소형 교회의 59%가 교회 차원의 은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 공백이 두드러졌다.
- 특히 교회 지원도 없고 개인 준비도 하지 못한 담임목사가 34%에 달해, 한인교회 목회자의 은퇴 안전망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은퇴 준비 지원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 담임목사, N=115, %)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이번호 요약

1. 미국 한인교회, '100명 미만' 중소형교회가 76%에 달해!

미국 PCA교단 소속 한인교회의 성인 기준 출석 교인 수 비중을 살펴본 결과, '29명 이하'가 30%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99명' 25%, '30~49명' 21% 순이었다. '50명 미만' 소형교회가 전체의 절반(51%), '100명 미만'은 교회 4곳 중 3곳(76%)에 달해 중소형교회 편중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2.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 41%, 현재 '영적 번아웃' 상태!

현재 목회자의 영적 상태를 묻은 결과, 미국 한인교회 목회자의 41%는 '소진된 상태'(매우+약간)라고 응답했다. 특히 이러한 영적 소진은 쉼의 부재와 경제적 고충과 맞물려 있었다.

3. 향후 목회 중점 세대, 미국은 '모든 세대' vs 한국은 '3040세대'!

향후 목회에 중점을 두고 싶은 세대를 묻은 결과, 미국 한인교회는 '모든 세대를 비슷하게' 중점을 두겠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다. 반면, 한국교회는 '3040세대'를 꼽은 비율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PCA교단 목회자 조사 결과 발표

관련 성경 구절

로렘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열왕기상 19장 5~7절)

목회 적용점

한인교회 목회자 41%가 영적 번아웃(소진)을 겪고 3명 중 1명이 외로움에 갇힌 시대, 목회자의 정서적·영적 위기는 더 이상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수 없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이제 목회자의 번아웃을 개인의 영성이나 자기관리 부족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정기적인 안식 시간을 갖지 못하거나, 가정과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이 목회자에게서 소진 비율이 더 높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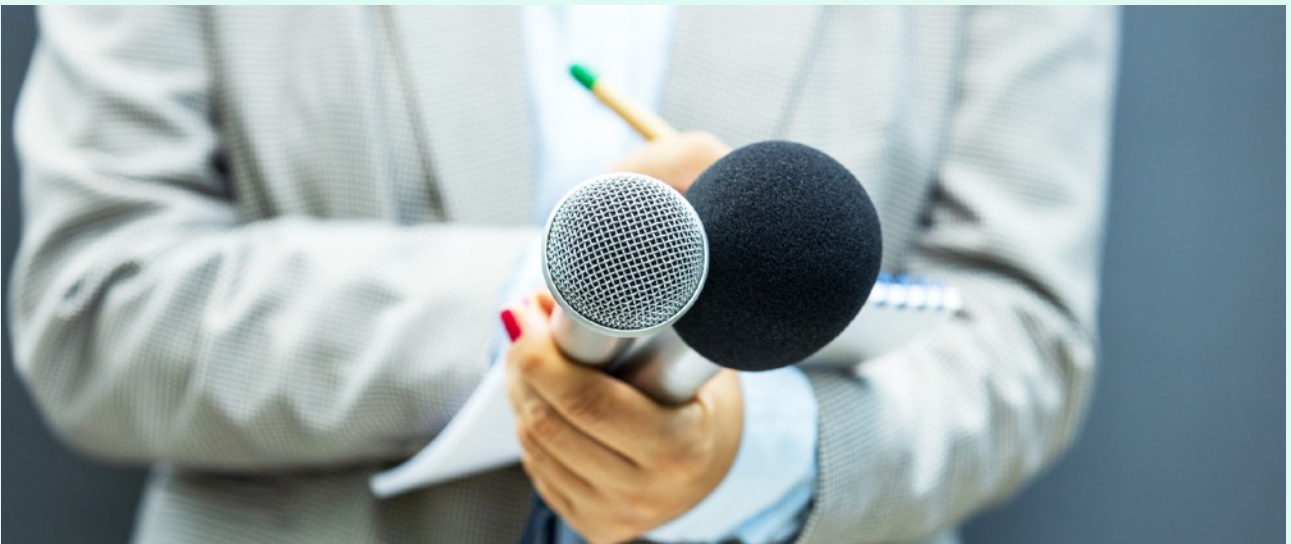
개교회가 모든 책임을 목회자 한 사람에게 맡기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회는 안식월과 휴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회와 총회는 쉼과 회복 프로그램, 동료 목회자 모임, 멘토링과 상담, 중소형교회 재정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 목회자의 쉼은 사역을 멈추는 일이 아니라, 목회를 오래 지속하기 위한 교회의 공동 책임이다.

한편 한인교회 목회자 69%가 10년 뒤 한인교회의 쇠퇴를 예상하고 있으며, 가장 어려운 사역으로 전도(45%)와 다음세대 교육(43%)을 꼽았다. 이러한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를 돌보겠다는 선언을 넘어, 세대가 실제로 만나고 신앙을 전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인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와 소그룹을 중심으로 시니어의 신앙 경험, 부모 세대의 책임, 다음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연결하고, 작은 교회들이 교육·전도 인력과 콘텐츠 공동으로 활용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인교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목회자의 희생을 더 요구하는 데 있지 않다. 지친 목회자를 먼저 살리고, 고립된 작은 교회를 서로 연결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복음의 주체로 서는 교회로 전환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1. 국내 체류·입국 외국인 현황



2. 2025 언론·미디어 이용 및 신뢰도



[넘버즈 칼럼]
여름휴가와 안식의 재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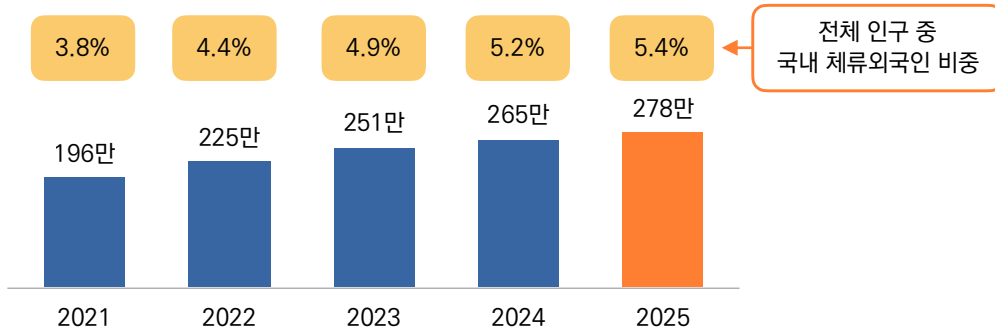


[국내 체류·입국 외국인 현황]

국내 체류외국인 278만 명, 4년 새 82만 명 늘었다!

- K-컬처의 확산과 취업·유학 등 영향으로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2021년 196만 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5년에는 278만 명을 기록했다. 4년 새 82만 명(42%)이나 급증한 수치이며, 전체 국민의 5.4%를 차지했다.

[그림]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 추이 (명)



※출처 : 법무부, 출입국통계(체류외국인)_연도별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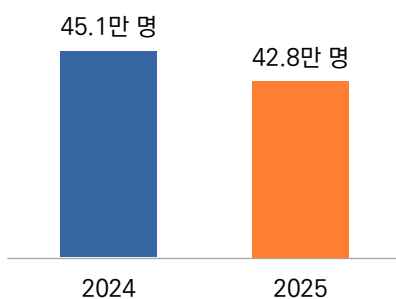
*체류외국인은 해당 연도 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장·단기 체류외국인 전체를 의미하며,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함.

Note) 전체 인구 중 국내 체류외국인 비중은 해당 연도말 주민등록인구통계 베이스로 산출함.

한국 입국 외국인 1위, 중국 제치고 ‘베트남’이 차지!

-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국내 9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 입국자는 2025년 42.8만 명으로 전년(45.1만 명) 대비 2.3만 명(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국적별로 보면 2025년 기준 ‘베트남’이 9.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9.4만 명), ‘미국’(2.3만 명)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2000년 국제인구이동통계 작성 이래 25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이다.

[그림] 외국인 입국자 수 (90일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 2026.07.09.

[표] 국적별 외국인 입국자 현황 변화 (상위 5위, 2024~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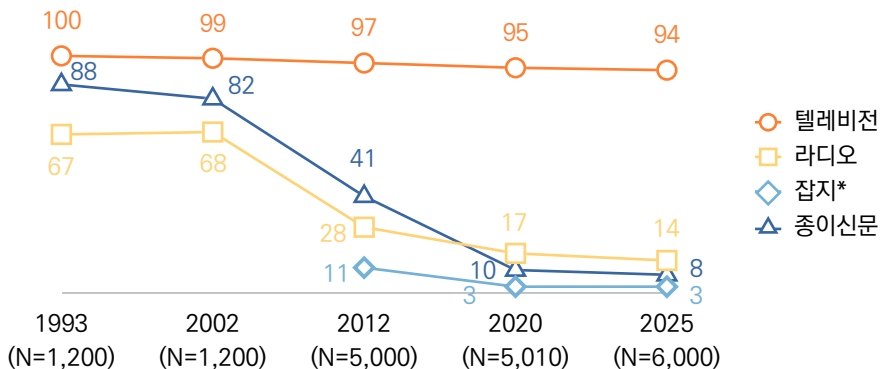
순위	2024	2025
1	중국 11.2만 (25%)	베트남 9.8만 (23%)
2	베트남 8.8만 (20%)	중국 9.4만 (22%)
3	미국 2.3만 (5%)	미국 2.3만 (5%)
4	태국 2.1만 (5%)	네팔 2.2만 (5%)
5	우즈베키스탄 1.7만 (4%)	우즈베키스탄 1.8만 (4%)



종이신문 읽는 비율, 역대 최저(8%) 기록!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우리 국민의 언론·미디어 이용 실태 및 인식을 정기적으로 추적조사하고 있는데 작년말 발표한 '2025 언론수용자 조사'의 몇몇 주요 결과를 살펴본다.
- 전통적 주요 매체인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종이신문 이용률을 보면 '텔레비전'의 경우 과거 30년 전(1993년)보다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9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라디오'와 '종이신문'의 경우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 과거 추이와 비교하면 종이신문의 쇠퇴는 더욱 도드라진다. 30여년 전인 1993년 88%에 달했던 열독률은 2012년 41%로 반토막을 거듭하다 결국 10% 선마저 무너지며 8%까지 추락했다.

[그림] 미디어별 이용률 추이 (지난 1주일간,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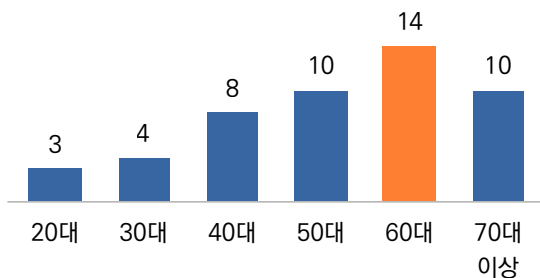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언론수용자 조사, 2025.12.31.(만 19세 이상 성인 6,000명, 면접조사)

*잡지는 2012년부터 처음 항목에 포함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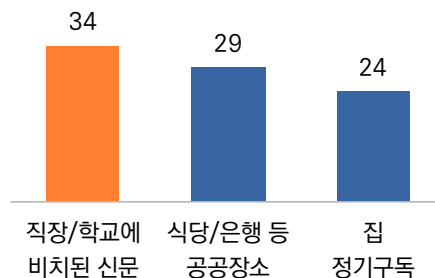
종이신문 핵심 독자층, '60대'!

- 연령별 종이신문 열독률을 살펴보면 60대가 14%로 가장 높고, 이어 50대(10%), 70대 이상(10%) 순이었다. 전체 열독률 핵심 독자층은 60대임을 알 수 있다.
- 종이신문 이용자들의 주요 열독 경로(중복응답)는 '직장/학교에 비치된 신문'(34%), '식당/은행 등 공공장소'(29%)가 각각 1,2위를 차지해,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보다는 '무료 경로'를 통해 신문을 읽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그림] 연령대별 종이신문 열독률 (2025, 지난 1주일간, 일반 국민, N=6,000, %)



[그림] 주요 열독 경로 (2025, 이용자 기준, 중복응답, 상위 3개, N=5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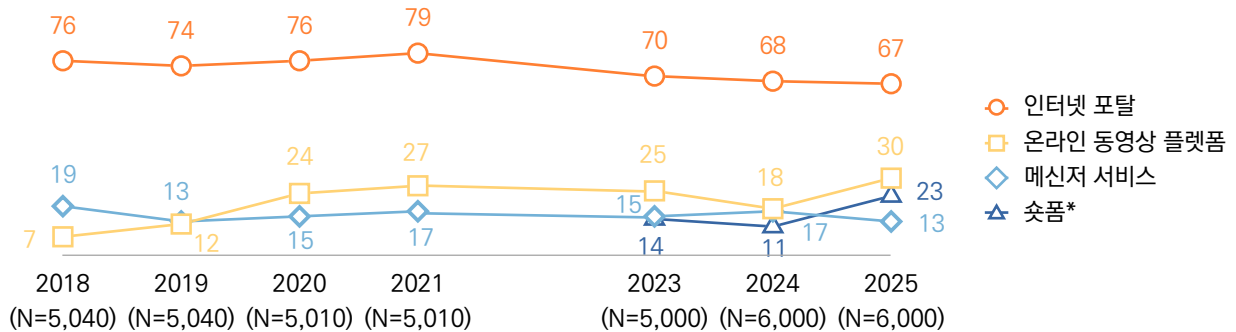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언론수용자 조사, 2025.12.31.(만 19세 이상 성인 6,000명, 면접조사)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숏폼’을 통한 뉴스 이용 급증!

- 미디어별 뉴스 이용률(뉴미디어 기준)을 살펴보면 ‘인터넷 포털’은 2021년 최고점(79%)을 찍은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 반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네이버TV 등)과 숏폼(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통한 뉴스 이용은 2024년 대비 각각 12%p 높아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숏폼이 국민들의 주요 뉴스 소비 경로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미디어별 뉴스 이용률 (지난 1주일간, 일반 국민, 뉴미디어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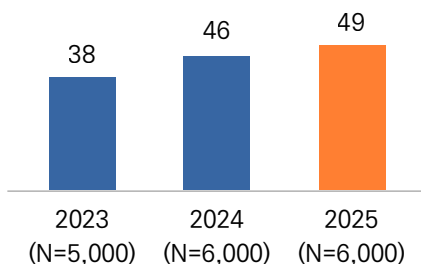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언론수용자 조사, 2025.12.31.(만 19세 이상 성인 6,000명, 면접조사)

*숏폼은 2023년 처음 항목에 포함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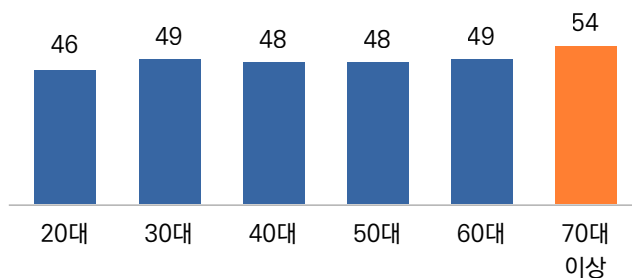
뉴스 신뢰도, 지난 2년 새 회복세!

- 우리 국민의 뉴스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2025년 49%로, 지난 2년간 지속해서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 ‘뉴스 신뢰도(매우+약간 신뢰함)’를 보면 70대 이상 연령층의 뉴스 신뢰도가 54%로 가장 높은 반면, 20대는 46%로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뉴스 신뢰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뉴스에 대한 신뢰도 추이 (일반 국민, ‘매우+약간 신뢰함’ 비율*, %)



[그림] 연령대별 뉴스 및 시사정보 ‘신뢰함’ 비율* (2025, 일반국민, N=6,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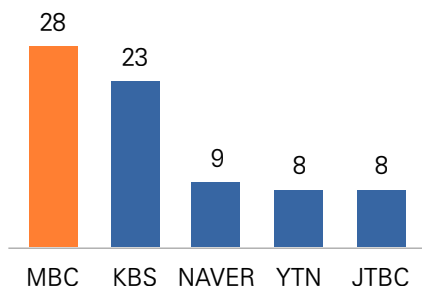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언론수용자 조사, 2025.12.31.(만 19세 이상 성인 6,000명, 면접조사)

*5점 척도

신뢰하는 언론사 1위, 50대 이하는 MBC, 60대 이상은 KBS!

-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사로는 MBC(28%)와 KBS(23%)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다만 '50대 이하'는 MBC, '60대 이상'은 KBS를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별로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그림] 신뢰하는 언론/매체사 Top.5
(2025, 일반 국민, N=6,000, %)



[표] 연령별 신뢰하는 언론/매체사 Top.3 (2025, 일반 국민, N=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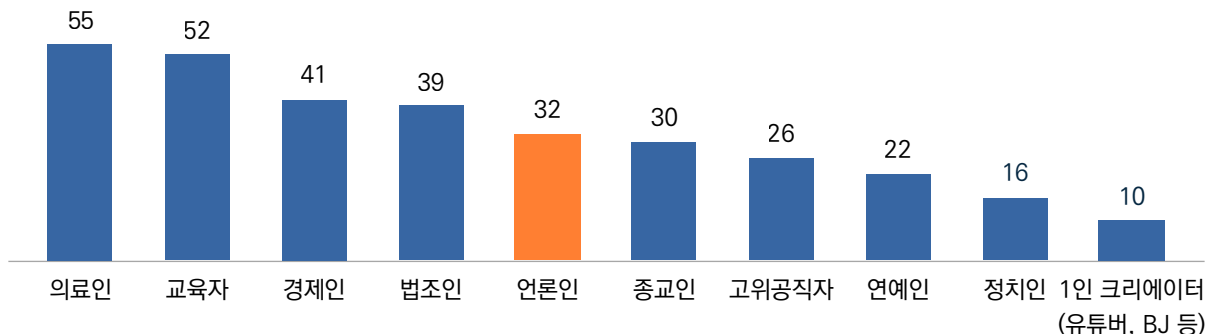
		1위	2위	3위
전체		MBC(28%)	KBS(23%)	NAVER(9%)
연령별	20대	MBC(23%)	NAVER(20%)	KBS(16%)
	30대	MBC(26%)	KBS(19%)	NAVER(18%)
	40대	MBC(32%)	KBS(20%)	NAVER(11%)
	50대	MBC(31%)	KBS(28%)	YTN(9%)
	60대	KBS(35%)	MBC(29%)	YTN(7%)
	70대 이상	KBS(47%)	MBC(28%)	YTN/TV조선(4%)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언론수용자 조사, 2025.12.31.(만 19세 이상 성인 6,000명, 면접조사)

언론인, 국민 3명 중 1명꼴 '신뢰한다'!

- 10개 주요 직업군에 대한 신뢰도 수준(매우+약간 높다)을 묻은 결과,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5위를 기록했으며, 국민 3명 중 1명꼴(32%)로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반면, 신뢰도가 가장 낮은 직업군은 '1인 크리에이터(유튜버, BJ 등)'로 단 10%에 그쳤으며, '정치인'(16%)과 '연예인'(22%) 역시 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림] 직업별 신뢰도 추이 (2025, 일반 국민, '매우+약간 높다' 비율*, N=6,000, %)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5 언론수용자 조사, 2025.12.31.(만 19세 이상 성인 6,000명, 면접조사)

*5점 척도

여름휴가와 안식의 재발견: 피로 사회를 거스르는 참된 쉼의 윤리

김선일 교수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

들어가며: 저항으로서의 안식

지난 학기 ‘일의 신학’(theology of work)이라는 과목을 강의했다. 많은 학생이 관심을 보이며 필요성에 공감한다. 일터 사역, 직업 소명, 일의 윤리라는 표현도 신선하게 들리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우리는 일과 영적 소명을 연결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그런데 ‘휴가’, ‘쉼’, ‘놀이’라는 단어에 신학적 언어를 붙이면 사정이 달라진다. 휴가의 신학, 쉼의 소명, 놀이의 사역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가능해도 어딘가 부자연스럽다. 쉬고, 놀고, 가만히 머무는 일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성경과 기독교 전통을 들여다보면 쉼과 휴식, 축제와 놀이, 기쁨과 즐거움은 신앙의 주변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 안식일의 제도, 절기의 축제, 식탁 교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잔치 이미지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쉼과 즐거움을 포함한다. 더군다나 성경적으로 안식은 분명히 명령이다. 그럼에도 한국교회 안에서는 쉼보다 헌신이, 놀이보다 사명이, 가만히 머무는 시간보다 바쁘게 섬기는 시간이 더 쉽게 신앙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것은 한국교회만의 문제라기보다 근면과 성취를 강조해 온 한국 사회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여름휴가 안내문을 본 적이 있다. 목사는 쉼과 영적 재충전을 위해 잠시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알리면서도 한여름에 생계를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고 했다. 성도들의 삶을 헤아리는 겸손한 마음은 감동적이었지만 동시에 목회자의 쉼조차 송구스럽게 설명되어야 하는 현실이 마음에 남았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쉼은 단지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 쉼은 우리가 멈추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신앙의 고백(“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 시 46:10)이자, 인간이 자기 노동과 성과로 세계를 지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 살아가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실천이다. 그러므로 안식은 개인 성과주의와 소비주의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저항이다.

워라밸의 증대와 피로의 새 얼굴

쉴 시간은 있는데 왜 쉬지 못하는가

한국인의 노동시간은 국제적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워라밸의 조건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의 확산, 여가와 자기돌봄에 대한 관심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생활 감각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인구의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쉼이 삶의 필수적 구성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연결](#)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69호 \(2026년 7월 3주\)](#)

-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검찰 보완 수사권 존폐, 경제 전망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84호 \(2026년 7월 3주\)](#)

- 국정운영 평가, 미래대응기금 조성, 통일 인식

사회 일반

[비수도권 출산·내집마련 비율 높지만...결혼 청년 57% 수도권에](#)

연합뉴스_2026.7.16.

["정신·영적 건강 좋은 직장인, 건강관리에 돈 더 쓴다"](#)

연합뉴스_2026.7.16.

["나는 안전" 77% vs "사회가 안전" 49%...인식 간극 뚜렷](#)

중앙일보_2026.7.15.

[국내 차량 2대 중 1대 50대 이상 소유...30대 이하의 감소](#)

연합뉴스_2026.7.20.

[휴가철 1인 가구 "도둑보다 택배 도난이 두렵다"](#)

국민일보_2026.7.20.

["나만 안 쓰면 뒤처질라"...한국인 2324만 명이 매달 컨 챗GPT](#)

동아일보_2026.7.16.

[주된 일자리서 평균 52.9세에 퇴직... 연금 받기까지 '소득 절벽' 12년](#)

조선일보_2026.7.18.

["하늬으로 2억 벌었다"...뇌는 '전치 4주' 고통 느낀다](#)

국민일보_2026.7.15.

[작년 건보가 부담한 약값 28조... 절반이 65세 이상](#)

조선일보_2026.7.16.

아동 · 청소년 · 청년

[청소년도박 자진신고 74% 급증...전교생 41명에 돈 빌린 중학생도](#)

연합뉴스_2026.7.20.

[청소년 ADHD·우울증 1년 새 16% ↑ ..."전문가 배치해야"](#)

동아일보_2026.7.20.

노인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70세 넘어도 일하고 싶다"는 이유](#)

한국경제_2026.7.16.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기업 여름휴가 평균 3.8일...8월 초 집중"](#)

연합뉴스_2026.7.12.

[삼성, 올해 브랜드 가치 9% 오른 974억달러...글로벌 빅테크 8위](#)

연합뉴스_2026.7.19.

[올해 1인당 GDP 3만9천달러 추산...5년만에 최대폭 증가](#)

연합뉴스_2026.7.19.

국제 • 환경

["트럼프 때문에..." 세계인, 이제 미국보다 중국 더 좋아한다](#)

연합뉴스_2026.7.16.

["매달 40건씩 들어온다"...일본 직장인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서비스의 정체](#)

매일경제_2026.7.14.

건강

['좌식형 인간' 암 사망 위험 높다...1시간마다 5분 '걷기 휴식'을](#)

한겨레_2026.7.20.

기독교 • 종교

['개미' 성도라면 왜 투자하는지 먼저 물어야](#)

국민일보_2026.7.13.

[휴가지 예배 VS 본교회 사수... 고민된다면 이것만은 명심](#)

국민일보_2026.7.8.

[청소년 신앙 형성, 출석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활성화'](#)

크리스찬타임스_2026.7.17.

[중국, 지하교회 단속 강화... 시진핑 집권 후 기독교인 1만여 명 체포](#)

크리스찬타임스_2026.7.16.

["성경 꾸준히 읽는 미국인 삶의 소명 인식 높아... 시련 속 신앙 의존도 커"](#)

데일리굿뉴스_2026.7.16.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윤성훈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넥스트목회교육원,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②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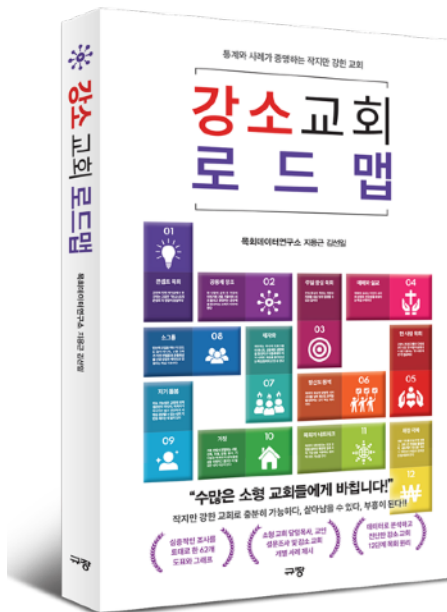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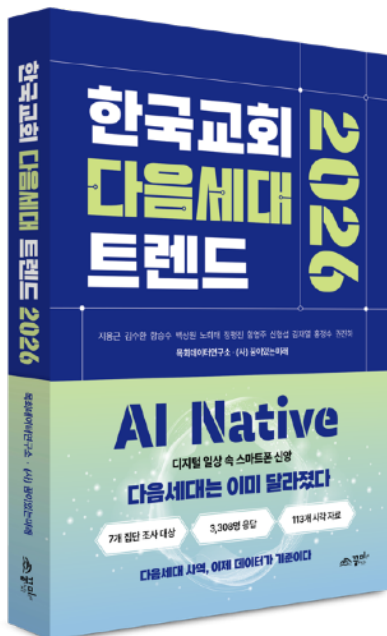


「강소교회 로드맵」 (출간일 : 2026.06.30.)

오늘날 한국 교회 다수를 차지하는 소형교회가 작지만 강력한 '강소교회'로 나아갈 실천적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소형교회 담임목사·교인 설문조사 데이터와 생생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강소교회의 12가지 목회 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출간일 : 2026.05.20.)

((사)꿈이있는미래 공동 출간)

다음세대 사역의 10가지 주요 이슈들에 대해 국내 최초로 학생, 부모, 교사, 사역자, 담임목사 등 총 7개 집단 (총 3,308명)을 동시에 다면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책으로 다음세대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한국교회 트렌드 2026」 (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책 구입 안내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후원자 배포)

- 2025년 작년 한해 동안의 매주 발간된 <넘버즈>를 모아 엮은 책으로 후원자에게만 배포하는 비매품입니다.
- 한국사회 변동상황과 교회 변화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공지



‘목회자님을 위한’ 소그룹 리더 온라인 양성 과정

라잇나우미디어에서 목회자님을 위한 소그룹 리더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 1) 일정 : 2026년 7월 23일(목) 19:00~21:30
- 2) 대상 : 소그룹 리빌딩을 원하시는 목회자님, 기관의 리더님
- 3) 강사 : 우명훈소장(세바시연사 코치)
- 4) 장소 : Zoom(신청자에 한해 링크 발송)
- 5) 참가비 : 3만원 (구독 교회는 2만원)
- 6) 신청/문의 : 1533-7104

[신청 링크](#)



AI 코파일럿 시대, 디지털 목회 전략 세미나

라잇나우미디어에서 이 시대에 교회에 꼭 필요한 디지털 전략 웨비나로 목회자님을 초청합니다.

- 1) 일정 : 2026년 7월 28일(화) 14:00~16:00
- 2) 특강 : 정평진목사(브리지임팩트 대표)
- 4) 장소 : Zoom(신청자에 한해 링크 발송)
- 5) 참가비 : 무료
- 6) 신청/문의 : 1533-7104

[신청 링크](#)